

좌윤공파 안동 연원 단소 첫 추향



지난 5월 수갈 고유제를 지난 안동 연원(燕院) 좌윤공파 파시조 단소 합제단에서 첫 추향례가 11월 7일 전국에서 참제한 1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

하게 봉행됐다.

고려 후기부터 안동시 북후면 오산이 일대에 조성된 합제단에 11세 주밀공(樞密公), 12세 병부정랑공(兵部正郎公), 13세 문과공(文科公)까지 좌윤공파(佐尹公派) 잇대 선조의 단소와 14세 영가군(永嘉君), 15세 고려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16세 문청공(文靖公), 17세 현령공(縣令公) 선조를 모시는 좌윤공파 세천(世阡)이다.

영가군(永嘉君) 산소는 안동원씨 사성 이후 14세 선조로서는 유일한 실존 산소여서 의미가 더 깊다. 문정은 다음과 같다.

초현관 권영철(權寧哲), 아현관 권정창(權正昌), 종현관 권갑현(權甲鉉), 집례 권혁근(權赫根), 대축 권용호(權容浩)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추밀공파 정간공 추향제 봉행



추밀공파 정간공(靖簡公, 권희권僖, 1319~1405) 추향제가 11월 2일 10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있는 정간공 묘소(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8호)에서 권병돈 정간공 종종 회장과 권오돈 추밀공파 및 문종공 종종 회장, 권태관 대현공 종종 회장, 권순호 전 대현공 종종 회장,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 권행완 대종회 편집국장, 권혁운 강릉종친회장과 강릉에서 평후공 후손 40여명 등 후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열 집례의 훌기에 따라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추향제는 초현관 권순구(權純求), 아현관 권호협(權五協), 종현관 권용주(權容周), 대축 권창

식(權璿植)으로 분방하였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병돈 회장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선언, 국민의례, 상례음,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재무보고, 2023년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했다. 권병돈 회장은 회의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간공 표준영정을 권오장 화백과 5천만에 계약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권오장 화백은 50여 년간 영정만 그려왔다. 그 동안 17분의 영정 작업을 했는데 후손으로서 안동원씨 선조 영정은 권율장군이 처음이

었다. 또 다시 정간공 선조의 영정을 그리게 되어 무척 영광이다. 문헌 기록과 후손들의 골상의 특징을 잘 살펴서 직접 영정을 모시고 주모할 수 있게 성심성의껏 죄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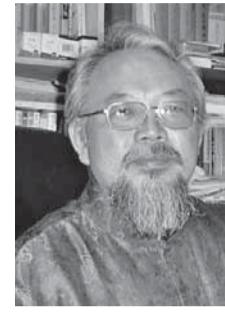
권병돈 회장은 성산여당과 관리동, 산소의 잔디가 융통보다 더 좋다. 그러나보니 관객들이 지나가다 가끔 뛰웠다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간공처럼 국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했으면 한다며 참배하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하며, 종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권오열, 권호협, 권혁승 세 사람의 감사를 소개가 끝나자 권혁승 감사가 종무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권병돈 회장은 25년 된 천우빌딩이 노후화되어 벽돌이 세어 수리를 했어도 지금도 세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재무보고, 결산보고서, 예산안 등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정기총회를 모두 마쳤다. 종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약간의 거마비를 쟁겨주었다.

정간공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음보로 관직에 기용되어 흥주도 병마사 등을 거쳐 문하찬성사에 이르러 영가군에 봉해졌고, 1393년(태조 2년) 겸교문하시중으로 개국원종공신이 됐다. 정치가이자 대학자로서 조선 최초 대제학을 지낸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16세)의 아버지다. 권행완 편집국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29)



이들은 혹시 망국의 원흉들인 개화파 한 무리들의 이단 후예가 아닌가가 의문이다. 그들이 약 1백 여년 간 부르짖었던 '유교 봉건주의(?)와 미신적인 전통사상(?)'에 대한 이른바 조국근대화(?)나 과학적(?) 청산은 곧 일본화, 서구화로 다시 이제 미국식 세계화로 전환하여 경제개발의 성과와 돈(眞錢) Mammon의 마귀신 devil(錢知錢能)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해 우리는 또 우리의 그 무엇을 바보처럼 내팽개칠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 忠君愛國이 유학의 덕목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만약 임금(帝王)과 나라(국가)를 날의 근본인 백성(국민; 인민; 민중)보다 우위에 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제1조 ①항과 ②항을 부정하는 것이며, 유학을 팔고 공자와 맹자를 배반하여 국가 지상주의를 신봉하고 백성을 굶기거나 끌어다 일시키다가 죽이는 임금을 섬겨 보좌하는 악의 무리가 되는 것이다.

청나라 말기 손문(孫文, 1866~1925)의 무창(武昌)에서 신해혁명(1911.10.10.)을 기의(起義)하여 17개 성(省)이 호응하자 성공하고 1912년 1월 남경에서 손문이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대총통이 되었다. 그러나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원세개(袁世凱, 1859~1916)와 곳곳의 군벌세력에 아직 크게 대회전을 벌릴만한 세력이 결집되지 않았던 손문이 타협하여 원세개가 중화민국(임시)대총통(제2대 임시대총통: 1912. 3.10.~1913. 10.10. / 초대 대총통: 1913.10.10.~1916.6.6.)이 되었다가 스스로 흥헌(洪憲)황제(중화제국, 1915.12.12.~1916.3.22.)가 되어 복벽반동으로 나아가면서 충군애국과 충효(忠孝)사상 그리고 강유위(康有爲, 1858~1927)는 무술변법과 유교의 대동(大同)사상 등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근대유학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양계조(梁啓初, 1873~1929와 함께), 공자교(孔子教)라는 종교적인 보수적 색채를 등에 업고 있었다.

중국의 1919년 5·4운동(제1차 문화혁명) 이후와 중국의 문화대혁명(1966~76년: '제2차 문화')에 '타도공가점(打倒孔家店: 공자의 가게 곧 유교를 타도)'과 '비공비림(批孔批林: 공자와 임표를 비판)하고' 전통사상을 파괴해야만 사회(공산)주의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 혁명과 개혁이란 오독(誤讀)과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소련과 동구의 붕괴(파르바트) 조약기구 WTO, 1955~1991, 8개국)에 이어 미국과 영국의 중심 서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49~현재, 미국·캐나다, 서구 28개국, 합해서 30개국)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국의 프로파간다(선전·宣傳, 영어: propaganda, 러시아어: ПП)

opaganla라는 것은 '일정한 의도를 갖고 세론을 조직하여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의 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전쟁 양상을 보면 쓸데없는 인간들의 서로의 엄청난 학살행위(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적군에게 그것을 뒤집어씌우기 바쁜 것 같다.

어떤 공간과 시대(宇宙)에도 보수와 진보세력은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들은 동서고금의 대제국도 외국의 침략과 경쟁이 전에 내부의 분열이나 독점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하이어레이션(Hierarchy-영어: 히에라르키-독어: 位階秩序) 구조의 무지·무능·몰상식·절제 없는 욕망의 극대화로 끝내 조국·국가·종교 등이 멸망·붕괴하는 것이 보편적인 역사이다.

일찍이 우리의 고려(高麗) 시대의 사회정치적 현실 및 조선(朝鮮) 조종기의 사화(土禍)와 당쟁(黨爭)의 사회정치사상과 한·중 왕조교체 양상을 보면 비슷한 모양새다.

고려의 외척 및 개경파 서경파 갈등 그리고 무신정권의 사회정치적 현실과 정치사상 등에서 외척 仁州 李氏 이자겸의 전횡을 종식(인종4년; 1126년)했으나, 그 뒤 무신 정중부 등에 의해 정변(의종 24년, 1170년)으로 무신 정권을 수립하여 이고,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 등에 의해 고종 44년(1258년)까지 약 90년간 이어졌다. 서경출신인 묵정, 백수환, 정지상 등은 국호를 대외국(大爲國)으로 하고 서경 천도와 관련하여 고려의 자주성과 관련한 연호를 수여만세(水德萬歲)를 주장하며 1135년 정변을 일으켰다. 고려 황제(국왕)를 비롯한 개경파는 금(金)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자인 유학 중심의 김부식을 토벌군 원수로 삼아 평정하게 되었다. 약 40년 뒤 1174년 서경유수 조위총도 반란을 일으켰다.

조선조는 고려 말 무장(武將) 출신으로 '위화도 회군'이라 끝난 반란으로 끝내 이성계(李成桂, 1335~1408, 재위 1392~1398)가 조선조 태조가 된 과정이, 후주(後周)의 상장군(上將軍) 출신인 북송(北宋)의 태조 조광윤(趙匡胤, 927~976, 재위 960~976)과 매우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고려가 중국 당나라의 사화정치적 제도나 사상을 참고하고 조선은 송나라의 그 것을 참고하였다.'고들 한다. 그래서 고려의 무신정권과 당(唐)나라 말기의 절도사들의 발호(跋扈)는 유사한 면이 있고, 송나라와 조선의 무장을 정치사회적으로 문관에 비해 천시한 것과 품계 등에서도 소외되어 문약(文弱)으로 인하여 북송(960~1127)과 남송(1127~1279)이 각각 금(金)나라(1115~1234)와 원(元)나라(1271~1368)에게 멸망당하였다.

그리고 조선도 임진왜란(정유재란) 및 인조반정(왕정구데타)과 (정묘) 병자호란의 앙대 큰 국난과 끝내 18세기부터 서인·노론의 일당전제와 정조의 진정한 탕평책과 개혁정치는 25년간으로 끝나고, 19세기 시작(1801)과 함께 외척의 세도 정치·삼정문란과 함께 20세기 초(1910.8.29)에 일제에 망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본다.

(다음호에 계속)

2022년 안동종친회 임원회의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2022년 임원회의"가 10월 31일 오후 4시 안동시 안기천로 18(태화동) 안동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종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계동, 권재주, 권주연, 권숙동 고문을 비롯하여 원로회원, 회장단, 상임운영위원, 청장년회 임원, 능공회원, 권리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임원회의는 회칙개정과 2023년(제50회)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 개최에 관한 건 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국가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문종을 빛내신 선조님과 서울 이태원 회생자

에 대한 묵념, 시조 묘소 망배, 회장인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죽친 어르신들에게 종친회를 위하여 죄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저도 종친회를 위하여 온몸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권남희 전 안동시의원은 "죽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도와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짧막하게 인사말을 했다.

이날 회칙개정은 안동종친회가 창립한 이후 가장 많은 회칙을 개정하는 등 대폭적으로 개정을 단행하였다. 회칙 개정안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제3장 5조 회원 자격

에 대한 묵념, 시조 묘소 망배, 회장인사, 종손(宗孫) 격려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2023년도 예산심의, 기타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죽친들이 많

2022 부정공파 정기총회 및 파조 추향제 봉행



부정공파종회(副正公派宗會: 회장 권오춘)는 10월 11일 오전 11시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놀곡재사(訥谷齋舍)에서 종원(宗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부정공파 정기총회 및 파조 추향제'를 엄숙히 봉행(奉行)하였다.

코로나19 때문에 정기총회를 2년 동안 미뤄오다가 최근 코로나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안동, 의성, 영덕, 대구, 부산 등지에서 참석한 종원들은 춥지도 덥지도 않는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다.

권순바 사무국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파조단소(派祖壇所) 향(向) 배례(拜禮), 상음례(相揖禮), 회장인사, 종손(宗孫) 격려사, 경과보고, 결산보고, 2023년도 예산심의, 기타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죽친들이 많

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으며 권기승 종손은 격려사에서 "코로나로 종회를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파종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죽친들에게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바 사무국장은 지난 6월 10일 경기도 구리시내에서 개최한 현덕왕후(顯德王后) 기진제(忌辰祭)에 권영도 회장이 아현관으로 참례(參祭)하는 등 6가지 주요활동사항을 보고했다. 곧이어 권재규 감사의 감사보고, 사무국장의 결산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 토의에서 종택에 있는 부정성려(副正世廬)와 재사에 걸려있는 우유당(優游堂) 등 풍(楓)과 현판(懸板)이 도난 및 훼손방지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기로 하고 아울러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종택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종회를 마친 자리에서 분정(分定)은 권재규 감사가 글을 쓰고 초현관 권기승(權奇昇, 종손), 아현관 권병주(權炳宙), 종현관 권병남(權丙南), 죽관 권용남(權勇男), 천자에 권영종(權寧宗)씨가 각각 담당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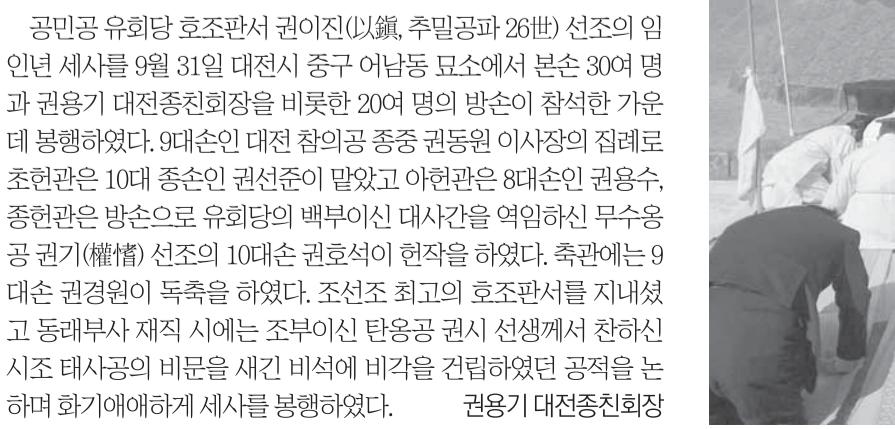
다. 분정을 마친 참제원들은 놀곡재사에서 음복례를 한 후 현관 3명은 짙은 남색 제복(祭服)과 갈을 쓰고 다른 제관과 참제원들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쓰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제수차(祭需車)가 제물을 신고 단소로 이동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읍(揖)을 한 후 권기승 초현관을 선두로 줄을 지어 파조 단소로 이동하였다.

권영종 집례의 훌기(笏記)에 따라 엄숙하고도 질서정연하게 1시간가량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추향제를 마친 참제원들은 놀곡재사로 돌아와서 음복례를 한 후 파조 추향제를 모두 마쳤다.

추향제가 끝나자 참제원 전원은 안동시 와룡 면내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 회기애 애한 분위기 속에서 간 고등어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고나서 모두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공민공 유희당 권리진 추향제 봉행



공민공 유희당(서호: 以鎭, 주밀공 26세) 선조의 임연 세사를 9월 31일 대전시 중구 어남동 묘소에서 본손 30여 명과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방손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9대손인 대전 참의공 종종 권동원 이사장의 집례로 초현관은 10대 종손인 권선준이 맡았고 아현관은 8대손인 권용수, 종현관은 방손으로 유희당의 백부이신 대사간을 역임하신 무수옹 공기원(權惜) 선조의 10대손 권호석이 현작을 하였다. 축관에는 9대손 권경원이 독축을 하였다. 조선조 최고의 호조판서를 지내셨고 동래부사 재직 시에는 조부이신 탄옹공 권시 선생께서 친하신 시조 태사공의 비문을 새긴 비석에 비각을 건립하였던 공적을 논하며 화기애애하게 세사를 봉행하였다.

<p